

중문학자가 진단한 현대의 중국

- 공상철 교수의 『코끼리에게 말을 거는 법』 서평

장경남*

I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중국에 대한 한반도 사람들의 태도나 인식은 시대마다 변화해 왔다.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였던 ‘조선’ 시대에 중국 대륙은 명나라, 청나라로 불렸다. 명나라로 불리던 17세기 초기까지의 중국은 문명의 중심으로 ‘중화’라고 했다. 그러나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하고 대륙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던 시절에 청나라는 ‘오랑캐’로 취급되어 ‘북벌’의 대상이었다가 18세기에는 ‘북학’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후 조선과 청은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가운데, 조선의 선비들은 각종 사신으로 북경을 다녀왔으며 그곳에서 소위 ‘서학’을 접하며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대한제국기를 거쳐 20세기 초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한국 전쟁 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중국은 먼 나라가 되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어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는 1992년까지는 중국공산당의 약칭인 ‘중공’으로 지칭했다. 21세기인 지금은 ‘중국’으로 부른다.

우리는 중국과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으나 우리가 바라보는 중국은 타자의 시선으로 그저 겉모습만 바라본 것 같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나 전혀 그렇지 않은, 그렇기에 공상철 교수는 역저 『코끼리에게 말을 거는 법』을 출간해 중국 이해의 길을 열었다. 겉으로만 바라본 중국이 아닌, 그들의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근대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내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확장해 보면서.

II

오랫동안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중국 읽기를 한 결과를 토대로 출간한 이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해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다. 우선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먼저 제1장 「코끼리 이력서」는 중국의 근현대사를 요약적으로 제시한 장이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한 이래 지금까지 겪어온 발자취를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커다란 틀에서 중국을 읽어냈다.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 중국의 근현대사를 제시한 것이다. 코끼리의 코로부터 상아, 몸, 네 다리까지 주욱 훑어서 그 거대한 몸을 보았다.

코끼리의 거대한 몸을 이력서로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코끼리의 특징적인 면을 들여다볼 차례이다. 거시적으로 근현대사를 읽어낸 이후 거침없이 중국 내부로 현미경을 비추었다. 코끼리의 급소를 바라본 것이다. 제2장 제3장이다. 이 두 개의 장은 「코끼리의 급소」 두 곳이다. ‘삼농(三農)’과 ‘세계의 공장’ 두 개의 키워드로 중국의 현실을 미시적으로 드러다 보았다. 마치 코끼리의 상아 두 개를 살펴보듯이.

2

첫 번째 급소인 ‘삼농’ : 중화인민공화국 전반기 30년과 후반기 30년의

역사는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의 두 축을 가로지르는 모험의 여정이었으며, 두 시간대는 연속적 자기 전개 과정이었다. 이런 자기 전개 과정에 힘입어 중국은 새로운 세기 초입에 들어서며 ‘샤오강’(小康) 단계로의 진입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2010년 즈음,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두 번째 규모의 경제체제로 우뚝섰다. 제3세계 국가들은 중국의 급성장의 비결을 배우고 싶어했다. 중국의 급성장 과정에는 하나의 고착화된 패턴이 있다.

저자는 이를 “국가자본의 절대적인 부족→대외개방을 통한 외자 유치→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위한 정부기업주의 전략→사회적 자원을 고도로 조직화(집단 체제, 국가 동원 체제)→도시와 농촌 간에 비대칭적 이원 구조 고착→국가 공업화에 따른 제도적 비용을 농촌에 전가”라는 알고리즘으로 읽었다.

중국이 유사한 조건을 가진 인도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더 높은 효율을 창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 구조 덕분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패턴의 마지막 고리인 농촌이라는 장소이다. 여기서 농촌은 국민경제의 하치장—비용과 리스크가 최종적으로 전가되는 장소라는 점에서—이자 저수지—무한한 자본의 원천(capital pool)이자 노동력의 원천(labor pool)이라는 점에서—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농촌은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되는 셈이다. 이 고리는 현재 ‘중국 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중앙정부가 생산한 ‘1호 문건’은 그해의 최고 중점 과제를 ‘삼농’(三農: 농민·농촌·농업) 문제로 적시했다. ‘개혁개방’ 30여 년의 시간이 양산해낸 ‘3대 격차’—공업과 농업의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격차—의 한 끝단에 이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삼농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 향촌의 내부로 들어가 우칸촌 사건에 주목했다. 우칸촌 사건은 2011년 9월 21일 광둥성(廣東省) 산웨이시(山尾市)에 소속된 루핑시(陸豐市) 역내 우칸촌(烏坎村) 주민 3~4천명이 루핑시 정부 청사와 파출소 앞에 모여 “우리 땅을 팔아먹은 부패공무원을 징벌하라”는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방 정부가 토지를 매입

하는 과정에서 향촌 간부가 횡령을 했는데, 이를 알게 된 촌민들이 장부 공개를 요구했고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에 탄원을 넣었는데, 지방 정부가 탄원을 외면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건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토지징수 문제와 탄원제도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는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형식이 변모함에 따라 농촌 곳곳에서 출현한 낯선 상황인 것이다.

농촌 문제의 새로운 양상은 마스크를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알박기 가구’이다. 2012년 11월 저장성(浙江省) 원링시(溫嶺市)의 한 농민이 시 당국의 철거 계획에 맞서 자신의 집을 사수하면 투쟁한 사건이다. 지방정부의 토지 징수가 관건인 듯한데 단순하지만은 않은 사건이다. 이러한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색이 ‘충칭모델(重慶模式)’로 명명된 실험이다. 이 실험의 기본철학은 토지는 공공재라는 것이다. 토지 공공재는 현재 우리나라 대선과정에서도 제기된 문제이다. 중국에서 이 실험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두 번째 급소인 ‘세계의 공장’ : 중국의 농촌 문제가 세계화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키워드는 ‘세계의 공장’이다. 개혁개방이 만들어 낸 구조적 문제가 바로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두 번째 규모의 경제체로 올라선 데에는 1980년대 농촌 지역 향진기업의 약진과 1990년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세계의 공장’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3대 격차’가 양산되었다. 공업/농업, 도시/농촌, 정신노동/육체노동의 격차이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는 농촌을 넘어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농민공의 물결’(民工潮)로 나타났다. 농민공의 물결은 ‘삼농’ 문제를 ‘세계의 공장’ 벨트로 확장시키면서 ‘농민공 문제’라는 새로운 화두를 중국 사회에 떠 안겼다. 일종의 성장통인 셈이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의 예측화라는 데 있다. 이 예측의 정도를 ‘떡살이 잡혀 있는 상태’로 파악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자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논리가 어떻게 관철되는지를 중국 광둥성(廣東省)에 위치한 폭스콘을 통해 들여다 보았다. 폭스콘 공장에서 목숨을

끓는 노동자들을 주목하면서 그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2010년 1년 동안 중국 각지에 산재한 폭스콘 공장들에서 18건의 연쇄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2016년까지 총 30건의 투신자 명단을 추가한 뒤에야 비로소 잠잠해졌다고 한다. 폭스콘은 현재 중국 내 20여 개 도시에서 100만 명 이상의 젊은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전자통신 업계의 ‘제국’을 구축하고 있는데, 중국 노동자들의 염가의 노동력에 힘입어 폭스콘은 2005년 세계 최대 핸드폰 위탁생산 공장이 되었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성장한 사례는 우리 한국에서도 이미 경험했던 바이다. 성장의 이면에는 목숨을 건 노동자들이 존재했고 그것은 중국의 일만이 아니다. 70-80년대 당시 구로공단, 청계피복벨트 등 한국의 노동의 현장에서도 발생했던 일이다. 그리고 당시 노동자들이 지었던 참여시가 지금 중국에서도 지어지고 있으니, 그 시절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하다.

저자가 설명하듯이 중국에서 진행된 ‘세계의 공장’ 역할은 이미 한국에서 경험되었던 것이다. 즉 1970-1980년대 한국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일원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하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한국에서 불거진 노동과 자본의 첨예화된 모순은 공동체의 삶에 수많은 문제를 양산했다. 이때 뽑어내던 공해와 미세먼지는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 진원지가 점차 중국대륙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 바통을 이어받으며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부 엔진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2020년 ‘금융자본화’ 단계에 진입한 중국은 자신들이 수행한 이 역할을 다시 동남아 국가들로 이월하고 있다. 저자가 지적해 낸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주변부인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읽고 있자니 서글픈 나머지 분노가 치민다.

세계의 공장장에서 일하던 농민공의 선택지는 어디인가? 이들의 삶은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중국은 삼농 문제와 아울러 세계의 공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중국의 대응이 궁금하다. 이는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길이다.

3

중국이 처한 딜레마와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은 4장 코끼리의 행보, 5장 코끼리가 늪에 빠졌을 때에서 풀어놓았다. 코끼리는 육중한 몸을 이끌고 좌충우돌하다가 늪에 빠졌다고 저자는 진단하는 것 같다.

‘세계의 공장’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부에 있을 때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안정적이었지만, 이제 미국과 경쟁적 관계로 변모함으로써 미국의 견제와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딜레마를 벗어날 길을 ‘일대일로’로 설정했다고 본다. 2013년 시진핑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실크로드 경제벨트’ 공동 건설을 제안하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제안하였다. 일대일로는 이 두 사업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남극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한 전 육상과 태평양에서 인도양, 지중해를 거쳐 발트해까지의 바다가 모두 이 그림 안에 들어와 있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일대일로는 중국 내부의 과잉 생산력과 새롭게 출현한 금융 이익을 처리하기 위한 외부 공간을 개척하려는 전략이다. 저자는 과잉자본을 해소하기 위한 21세기 버전의 지정학적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일대일로가 가동되자 지구상에는 새로운 버전의 ‘거대한 체스판’이 등장하였다. 판 위의 대륙의 북방에서는 러시아가 유럽을 넘보자 미국이 차단하고 나섰고, 이에 러시아는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도 여의치 않다. 판의 가운데 자리한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서는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가동해 겹겹이 코끼리를 에워싸고 있는 중이다. 그러자 중국이 서쪽으로 눈을 돌려 내륙 길 ‘일대’와 바닷길 ‘일로’를 통해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나, 미국은 ‘아시아퍼시픽’ 즉 일본-오스트레일리아 라인의 신중그물을 동원해 인도양으로 가는 길목을 겹겹이 차단하고 있다. 코끼리는 곤경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 중국이 이 곤경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실천을 통해 가능한가? ‘생태문명’의 건설이 그 하나이다. 여기서 다시 소환되는 것이 바로 향촌이다. 토지금융화를 ‘생태자원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산수와

논발, 임야 등 ‘생태자원의 가치화 실현’을 통해 과잉된 금융자본은 그것대로 흡수하면서 과도한 부채로 허덕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은 그것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태문명’ 개념은 2007년 처음 등장했는데 시진핑 체제의 핵심 과제가 되면서 2017년 ‘농업에 대한 이해, 농촌 사랑, 농민 사랑’ 슬로건과 함께 ‘향촌 진흥’을 국가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주기적인 위기와 이로 인한 안전판 확보의 필요성, 현대화 과정에서 ‘안정장치’이자 ‘조절장치’의 역할을 했던 향촌사회의 붕괴 및 자원환경과 생태환경의 파괴 등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런 배경 위에서 ‘향촌 진흥’ 전략이 설정되고 ‘녹색 생산’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제시되면서 현재 중국의 농촌에서는 다양한 실험과 실천들이 수행되고 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일대일로 전략을 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지구촌에는 두 힘이 충돌하는 새로운 헤게모니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신냉전 시대의 출현이다. 그런데 홍콩사태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은 곤경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III

저자는 중국을 공부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한반도의 문제도 함께 바라보고 있다. 세계의 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로 압축될 것이며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것의 종속변수로 보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두 강대국의 힘겨루기는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중국의 ‘일로’와 미국·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틈새를 파고 들어가는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11월 제1차 안-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담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과 일본이 석권하고 있던 지역의 정상들을 모두 부산으로 초대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는 ‘사람’과 ‘존중’이었다. 이것은 2019년 6월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아세안 중심성과 포용성, 상호 보완성, 국제법에 뿌리를 둔 규칙 기반의 질서, 역내 경제 교류 증진”에 대한 화답이다. 그간 강대국들이 보인 팽창시도에 대한 불만이 “왜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가”였는데, 문 대통령은 이를 적극 지지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신냉전의 틈바구니에서 유의미한 입지 하나를 확보한 것이다.

강대국 사이에 놓인 우리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제대로 알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IV

저자는 중국을 미시적·거시적으로 들여다보았다. 미시적 접근을 통해서 중국의 내부를 관찰하고 있고, 거시적 접근을 통해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중국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중국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의도이다. 가끔 중국 사회 문제와 관련된 영화를 제시하면서 그 이해의 시각을 깊게 하고 있는 점은 저자의 세심한 배려로 볼 수 있다. 좀더 다양한 영화나 또는 문학 작품을 제시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중국 정치 경제 문제는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다. 좀더 쉽게 접근하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문학이나 영화라는 보조 장치를 이용한 설명이 아닐까 싶다. 워낙에 복잡한 중국 사회이기에 이 한 권의 책으로 중국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다양한 시각으로 혹은 열린 사고로 중국 사회를 들여다보려는 저자의 의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본다.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체제의 향후 변화와 한반도 협력 시대를 위한 공부의 판은 펼쳐졌기 때문이다. 비로소 중국이 보이기 시작했다고나 할까.

필자가 이 책을 저자에게 받아 본 후에 처음 들었던 생각이 왜 책의 제목에 ‘코끼리’를 넣었는가였다. 그리고 이내, 왜인지 모르겠으나 박지원의 연행록인 『열하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상기(象記)」라는 글이 떠올랐다.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다시 박지원의 해당 글을 찾아 읽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 부분인 다음 내용을 곱씹어 보았다.

코끼리는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눕히니, 그 코는 천하에 상대가 없으나 쥐를 만나면 코를 가지고도 쓸모가 없어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니 섰다니, 이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섭다고 하면 아까 말한 소위 하늘이 낸 이치에 맞다고는 못할 것이다. 대체로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에 있어 모를 것이 이 같거늘,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 배나 복잡함이라. 그러므로 성인이 《역경》을 지을 때 코끼리 상(象) 자를 따서 지은 것도 이 코끼리 같은 형상을 보고 만물이 변화하는 이치를 연구하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만사를 ‘하늘’이 명한 ‘이치’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에게 박지원은 코끼리를 예로 들었다. 코끼리가 먹이를 씹는 데는 전혀 쓸모없는 큰 어금니를 지닌 것이나, 호랑이도 일격에 죽일 수 있는 코를 가졌건만 콧구멍으로 기어들까 봐 쥐에게는 꿈쩍못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소·말·닭·개 따위의 일상적인 사물밖에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협소한 영역에서나 통할 ‘이치’로써 이 광대무변한 세계를 가늠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코끼리에게도 이처럼 불가사의한 면이 많은데, 그보다 수만 갑절 되는 천하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박지원은 국한된 경험 세계에 기인한 일체의 선입견을 버리고, 개방적인 자세로 만물의 무궁한 변화를 탐구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현실 세계란 광대무변하고 변화무쌍하므로, 이러한 세계의 경이로운 앞에 개방적인 자세로 임해야만 진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박지원이 「상기」에서 설파한 개방적 자세는 공상철 교수의 『코끼리에게 말을 거는 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로 복잡다단하다. 물론 눈 딱 감고 내 앞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이 어찌 그런가. 이웃을 통해 나를 보고 나를 통해 이웃을 보려는 태도를 가져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중

국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식할 수 있고, 나아가 현실 문제의 해법도 찾을 수 있다는 저자의 생각이 바로 ‘코끼리에게 말을 걸기’가 아닐까.

코끼리는 몸이 크다. 하지만 큰 몸만 바라보고 코끼리를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없다. 기다란 코, 큰 상아, 넓은 귀, 그리고 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눈과 꼬리는 코끼리의 거대한 몸과 함께 코끼리를 이룬다. 거대한 중국도 외양만 보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내부 사회의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아야만 이해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개방적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이 책은 중국을 제대로 알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 책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필자도 이 책을 읽고 나서야 중국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

〈사족〉

필자는 2017년 연구년을 맞아 중국의 장쑤성(江蘇省) 수저우(蘇州)에 위치한 대학에 초빙교수로 다녀왔다. 그때 그곳의 거리 곳곳에는 ‘중국몽(中國夢)’이라는 세 글자가 벽보로 깃발로 나부끼고 있었다. 막연히 글자 그대로 ‘중국 미래의 꿈’으로 이해는 했으나, 그 내막은 잘 몰랐다. 몇 년이 지난 지금 2021년에 공상철 교수의 책을 통해 그 표어가 지닌 깊은 의미를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다. 좁은 시야를 벗어나게 한, 유익한 책을 쓴 저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